목어

말로만 百年大計



수능 시험의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너무 어려워 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많다. 그런데 이 '제도' 이야기, 특히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 교육제도 이야기만 나오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 민감의 느낌은 "또 바꿔?"이다.

"모는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믿는 불자로서 바뀜이 어찌 이상하랴마는, 마치 뭐 널뛰듯 바뀌는 교육제도를 보면 멀미가 난다. 다 비싼 돈 들여서 연구한 제도일텐데 어찌 그리도 몹쓸 제도만 만들어 냈던가? 정권 바뀌고 장관 바뀌면 마치 이전의 제도는 천하에 몹쓸 제도, 폐단만 많은 제도라도 되는 듯 바꿔버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뀌는 교육제도에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당사자인 수험생들, 그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일 것이다. 진학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까지 헷갈리게 변하는 제도에 따라가느라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안스럽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늘 강조하면서도, 교육제도는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도 안되는 현실의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자주 바꾸다 보면 자연 졸속이 되지 않을 리가 없으리라. 교육 일선의 사정은 무시한 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교육 현장을 난도질한 일도 있었다. 교육 현장의 모순은 결국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육 제도만 문제로 삼는 근본적인 잘못이 늘 그 아래 깔려 있어 왔다. '백년지대계'이기에 조그만 나쁜 점이라도 빨리 고치려다 보니 자주 바꾸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쓸 데 없이 자주 바뀌는 제도는 결국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결국 교육 자체를 멍들게 만든다.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씩 보완하면서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예 교육 제도의 기본 골격은 10년 정도는 바꿀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다시 미소 지을 '안방 부처님'

불교TV가 살아난다

21일 사옥 기공 내년 말 완공
광고 수입 증가… 흑자 경영 전환

불교TV(사장 이수덕)가 빠르면 내년 말에 스튜디오와 법당을 갖춘 새 사옥을 마련, 영상 포교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TV는 이번 사옥 마련을 계기로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던 '부도와 파산 위기 방송'이란 오명을 씻고 한층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TV는 21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사옥 신축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는다. 새 사옥은 연건평 1250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이다. 이번에 건축될 사옥의 총 공사비용은 약 5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불교계 건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각 층마다 보시, 정진, 지계, 인욕, 선정, 지혜 등 6바라밀 이름을 붙이고 6층 옥상에는 정면에서 볼 수 있게 팔정도 법구를 새겨 놓을 예정이다. 또 2층에는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80여평 규모의 법당도 마련할 계획이어서 법회와 각종 행사를 생중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하층은 방송 편집실과 수익사업을 위한 불교용품점, 3~4층은 사무실과 자료실로 사용된다.

그러면 50억원의 사옥 공사를 앞두고 있는 불교TV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 지난해 6월 회장으로 취임한 성우 스님(파계사 주지)과 이수덕 사장이 투자와 긴축 경영을 한 결과 일단 112억원이 넘던 부채가 1년만에 약 40억원으로 줄었다. 현재는 성업공사 8억원과 한국통신 전송망 사용료 19억5천만원, 사채 7억1천만원, 임금 및 미지급금 6억원 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부채 상환뿐만이 아니다. 경영 상태도 매달 4천만원~6천만원 정도의 흑자를 내는 등 많이 호전됐다. 이렇게 수입 규모가 확대된 것은 1년전만해도 8천만원이던 광고수입이 2억4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교TV는 내년 3월부터 위성방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어서 광고 수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3년안에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불교TV는 낙관하고 있다.

이수덕 사장은 "잔여 임기 2년내에 장묘 및 해외 시청권 확대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많이 벌려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흑자로 돌아서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새 사옥 마련은 영상 포교 원년을 지향하며 제대로 갖춰진 시설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부처님의 법음을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아직 부채도 남아있는데 무슨 사옥 마련이냐고 일부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지 모르나 회장 스님을 비롯해 영상 포교에 원력을 가진 뜻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사옥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TV가 서울 봉천동에 건립하는 사옥 조감도.

계율정신 확산 '기대'

'비니법석' 결성 의미
환경 · 복지 활동 병행
재가5계 운동도 전개

조계종 율원 스님들이 '비니법석'을 결성하며 내세운 모임의 취지는 계율정신 고취를 통해 승 · 재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5계만 잘 지켜도 승단과 사회가 요즘처럼 혼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율원 스님들은 말하고 있다.

우선 주목할만한 점은 율원 스님들이 연대한 것도 처음이지만, 승가의 '지계(持戒)'를 외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현재 승가의 모습이 지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승가의 기본이 계율에 있음에도, 계율을 지키는 분위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 '비니법석'이 '수행가풍 확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5계 파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과 교리학습이 강조돼 온 불자들의 신행 패턴에 계율의 중요성까지 가미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비니법석(毘尼法席)이란?

'비니'는 범어 '비나야(vinaya)'와 같은 말로, '율(律 · 출가한 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의미한다. '법석'은 '수행승을 지도육성하는 장소'라는 뜻. 합성어인 비니법석은 '계율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비니법석'은 계율 정신이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환경과 복지 등 대 사회적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율원 스님들 스스로가 '비니법석'의 성격을 '학회(學會)'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율정신 보급을 통해 스스로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사회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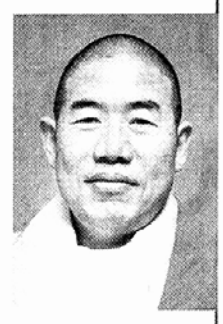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비니법석'이 어느 정도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엄한 율원의 특성상 시대흐름에 맞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비니법석'은 "결코 구호성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승가와 재가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계율을 연구하는 전문교육기관인 율원이 청정승풍 확립과 사회정화를 외치고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선불교의 모든 것 재조명 해야죠"

조선불교硏 원장 보선 스님



"왜곡되고 폄하되어온 조선시대 불교사를 새롭게 복원하겠습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둔사가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중심도량을 선언하고 나섰다. 3일 국내 최초로 대둔사에 문을 연 조선시대 불교 연구기관 '조선불교연구원' 원장 보선 스님(대둔사 주지)은 "조선시대 불교는 그 동안 호국불교, 산중불교라는 단편적 해석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특정 사찰이나 특정 인물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와 불교사의 틀에서 조선시대 불교의 전반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재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불교연구원은 99년 설립된 (사)서산대사 호국정신 선양회가 기폭제가 됐다. 스님은 "처음에는 서산대사 중심으로만 사고했을 뿐 조선불교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며 "조선시대 불교 연구가 워낙 취약하다보니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조선불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회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산대사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를 통틀어 빼놓을 수 없는 대선승이었는데도 신통력을 보여준 기인쯤으로 묘사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불교학 · 미술사학 등 연구위원 7명 위촉

조선불교연구원은 불교학, 사학, 미술사학, 고고미술학 등 불교 관련 전문가 7명을 연구위원(위원장 김상현 동국대 교수)으로 위촉해 바로 이 '자료 축적'에 가장 중점을 둘 계획이다. 스님은 "현재의 한국 불교와 직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는데도 지금까지 연구 성과는 승병, 선시, 민속사 등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돼 왔다"며 "조선시대 스님들의 비문이나 문집, 사적기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유학자의 문집, 불화의 화기 등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조선불교의 전체적 모습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체계적이고 실속있게 연구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운영 원칙도 밝혔다. 스님은 "축적된 자료는 그때그때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학술 세미나와 대중 강연 정례화, 조선시대 불교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전문가와 대중에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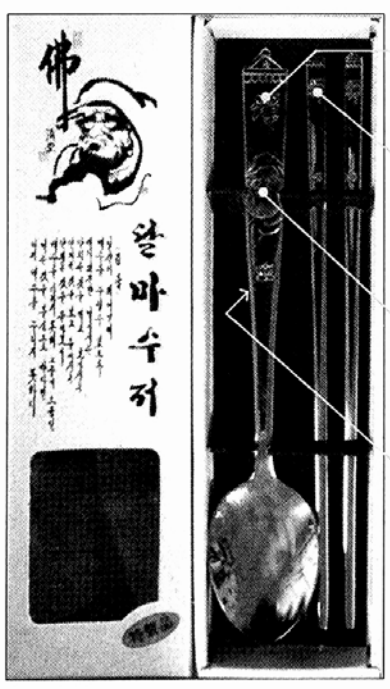
보선 스님은 "조선시대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불교교단은 꿋꿋하게 유지되면서 오늘날의 가풍인 간경, 참선, 염불의 전통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 파고들어 서민화, 대중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며 "연구소 개원을 시발로 한국 불교의 역사 정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불교를 조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달마가 수저로 간 까닭은?

문의 051) 582-7579
(주)KG-NET <金剛>

저작권등록번호: c-2001-002422 상표등록 40-2001-0048217





<도금된 두종류의 달마상 확대모습>

재질/ 스텐레스 27종 ●
코팅/ 금 (달마상부분과 수저 윗부분) ●
종류/ 남,여 1Set, 공용수저 ●
여러가지 디자인중에 설문 조사후 결정모델 ●

숟가락 뒷면에 행사내용,관광지이름,사찰 이름등(일정수량이상) 새겨드립니다.

모집
* 지역별 총판 영업하실분
(서울, 경기지역 총괄하실분)
* 불교점, 기념품점등 유통하실분
* 사찰 전문 행사 지원 업체
*사찰내 식당 특별상담
(특별주문 제작가능)

인간이 태어날때 백수를 누릴 수 있도록 태어 났건만, 먹어서는 안되는 것을 먹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되는 것을 듣다보니, 백수를 다하지 못해 그 중에 으뜸인 먹는 것을 불심으로 한다면 어찌 백수를 누리지 못하리..

제작지원: (주) 대왕금속 (주)대림산업 달마shop